

인문학의 모태 누정... 돌아와 머무르며 깨우치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홀로 선 자들의 역사

김동완 지음

“누정은 산수에서 만나는 ‘책 밖으로 튀어나온 역사서’이며 철학, 예술, 풍수, 건축, 지리를 담은 ‘뜻밖의 인문학 사전’이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역사기행 전문작가 김동완의 견해다. 그는 누정에 대한 정의를 그 이상으로 확장한다. “구심력과 원심력을 갖춘 인문 현상의 정수”라는 수사에 선 만만찮은 내용이 읽힌다.



김 작가가 최근 펴낸 책은 전국의 누정을 주제로 했다. 제목부터 범상치 않은 ‘홀로 선 자들의 역사’는 누정에 얽힌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백호 임제와 그의 부친 임진, 조부 임봉 등에 대한 추모를 담은 나주 영모정(왼쪽)과 면양정 송순이 담양 제월봉에 지은 정자 ‘면양정’.



〈글항아리 제공〉

저자는 “누정이라는 끈을 잡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이 낡은 영상처럼 펼쳐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곤 했다”며 “글을 쓰는 동안은 누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했다.

책은 경북일보에 2년 간 연재한 ‘정자(亭子)’ 100 회 분 중 일부다. 글을 쓰는 한편으로 아내가 운영하는 삼겹살집에서 ‘점성대 조르바’라는 이름의 불복 하니를 했다. 낮에는 글을 쓰고 밤에는 고기를 굽는 자칭 ‘주경야문’의 이중생활 끝에 나온 결실이다.

저자가 주목한 누정에는 ‘나갔다가 돌아온 이들’의 정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 조선 선비의 롤 모델로 여겨졌던 도연명의 ‘귀거래사’와 같은 의미가 투영돼 있다. ‘귀(歸)’라는 주제로 묶인 안동 고산정,

담양 면양정, 광주 환벽당, 성주 만귀정 등을 만날 수 있다.

환벽당은 사촌 김윤제(1501-1572)가 노년에 후학양성을 목적으로 건립했다. 소년 정철이 김윤제를 만나 문하생이 됐고 이곳에서 유숙을 했다. 정철은 관직에 나간 이후 탄탄대로를 걸었지만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엇갈린다. 환벽당은 당대 석학들인 송순, 양산보, 김인후, 김성원, 기대승 등이 드나들며 학문을 교류했다.

면양정은 송순이 공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지은 정자다. 그는 김안로 일파가 세력을 잡자 낙향을 해, 제월봉에 누정을 지었다. 송순이 호남가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과거 급제 60주년을 기념하는 회방잔치가 열리고 선조가 선물을 보낸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저자가 주목한 누정의 두 번째 주제는 ‘처(處)’다. 머무름의 철학과 미학이라는 의미로, 출처지의(出處之義)의 처세관을 반영한다.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그 몸을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책에는 거창 요수정, 경주 종오정, 영덕 침수정, 괴산 취묵당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나주의 영모정, 광주의 취가정은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세운 정자다. 그리움이 향한 곳이라는 ‘모(慕)’를 모티브로 전개된다. 영모정에선 조선의 천재시인이자 아웃사이더 백호 임제의 삶과 시혼을 느낄 수 있다. 원래 귀재정이었던 이곳은 임봉이 자신의 호를 따 지었는데, 그는 조광조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낙향했다.

사후 그의 아들인 임복과 임진이 부친을 추모하기 위해 영모정으로 바꿔 재건했다. 임진은 바로 백호 임제의 아버지다. 이곳에는 백호의 족적이 담긴 비석과 기념 건물이 있으며 인근에는 백호문학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누각에 담긴 빛나는 시문과 문장, 심을 연계로 ‘휴(休)’를 조명한다. 금강산과 동해를 품은 고성 청간정, 당대 최고 시인묵객들이 찾았던 삼척 죽서루 등이 소개된다.

김 작가는 “선비들은 누정은 물론 주변의 이름 없는 산과 물, 바위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정신세계를 구축했다. 편액과 산, 물, 바위에 붙여진 이름은 ‘고문진보(古文眞寶)’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인다.

〈글항아리·1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창의성의 기원

에드워드 윌슨, 이한음 옮김

코로나가 던진 화두 가운데 압축적인 키워드를 꼽으라면 ‘창의성’일 것이다. 학계와 경제계, 교육계는 창의성에 대해 고민한다. 자동차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최고 창의성 책임자 자리를 만들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 이후 핵심역량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꼽기도 했다.



창의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발현될까?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낳은 책의 종류도 부지기수다. 우리시대 ‘창의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 동물학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사회 생물학의 창시자 에드워드 윌슨이 ‘창의성의 기원’을 펴냈다. 무엇보다 그는 ‘통섭’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자연 과학과 인문학 등 학문의 경계 허물기를 주장했다. 이번 책의 의미는 창의성이 인류와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으로 본다는 데 있다. 아울러 인간 창의성의 기원과 미래, 그 잠재력을 억누르는 것이 무엇인지 압축적으로 설명한다.

창의성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최적의 방안은 인문학과 과학의 섞임이다. 윌슨은 “과학과 인문학은 창의성을 낳는 동일한 뇌 과정에서 기원한 것”이라며 이들 조합은 “인간 지성의 잠재적 토대”가 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또한 현재 인문학이 처한 문제를 이렇게 지적한다. “인간 관계 설명에 근원이 빠져 있고, 제한된 감각 경험이라는 공기 방울 안에 갇혀 있을 뿐이다. 이런 단점들 때문에 인문학은 불필요하리만큼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따라서 인간 조건의 궁극 원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한편으로 책에는 창작 예술에 대한 경의감도 담겨 있다. 위대한 영화들, 소설들, 회화작품들에 대한 심미안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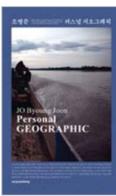
〈사이언스북스·1만9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병준 퍼스널 지오그래픽

조병준 지음

시인이자 문화평론가 그리고 1세대 배낭 여행자, 켈커가 마더 테레사 하우스 자원봉사자. 이색적인 이력이 눈에 띄는 저자일수록 그가 펴낸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조병준이 그렇다. 그는 시처럼 살고, 길 위에 살고, 오지랄 부리며 살았다.



그가 5년 만에 펴낸 ‘조병준 퍼스널 지오그래픽’은 그의 삶을 담은 에세이집이다. 지난 30여 년간 기고했던 글 중에서 출간되지 않았던 이야기를 주려 엮었다. 책은 당시 원고에 현재의 소회를 붙였으며, 그로 인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 서툰과 마흔 즈음에 썼던 글을 지금의 시각으로 들여다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좋은 글은 시대를 초월해 울림을 주기 마련이다. 저자의 글에는 방대한 잡학사전과 같은 분위기를 발한다. 그의 잡(雜) 학은 두루두루 걸쳐 있다. 문학과 과학, 예술이 교차하며 사회와 문화가 서로 이접(異接)한다. 내 이웃을 이야기하면서도 지구촌 너머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30년 전 첫 여행에서 서른 번째 생일을 길 위에서 맞았던 저자는 2020년 가을에는 긴 여행을 떠나겠다고 얘기했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사방’이 막혔다. 역병이라는 고대 언어가 다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런 가운데 이번 책 작업은 ‘홀어린 구슬 서 말 제기’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저자는 “세상에 흩어진 내 글들을 모아 보면, 어설피게나마 지도 한 장은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믿음 또는 바람에서 출발한 작업이 이렇게 일단 마무리되었다”며 “열심히 그린다고 그린 지도가 오히려 길을 잃게 만드는 지도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며 말한다.

〈수류산방·2만1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기기묘묘 고양이 한국사

바다루 지음

‘고양이와 한국인, 그 기나긴 동행을 따라서’ 오늘날 인터넷에는 매일같이 수많은 고양이 사진과 영상이 오르내리고, 사람들은 고양이의 모습을 보며 잠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위로를 받는다.



고양이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자동차나 인가적으로 깜짝 놀라 달아나는 고양이도 있고, 사람에게 먼저 다가와 ‘냥’ 하며 몸을 부비거나 바닥에 드러누워 애교를 부리는 고양이도 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보이지 않으면, 한 번쯤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한국에 사는 고양이들은 언제부터 우리 곁에 머무르게 되었고 어떻게 공존해 왔을까. ‘기기묘묘 고양이 한국사’는 묘연했던 한국 고양이들의 내력을 낱알이 들려준다. 어디를 거쳐 이 땅에 왔는지, 얼마나 귀여움을 받았는지, 어쩌다 도시를 떠돌게 되었는지 등 그 역사적 맥락을 밝힌다.

저자 바다루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사에 자취를 남긴 고양이와 관련한 짧은 글들을 SNS에 올리면서 주목받았다.

책은 ‘고양이 조상들의 오디세이’, ‘고양이, 한국에 상륙하다’, ‘선비들의 사랑을 받다’, ‘한국사를 뒤흔든 스캔들’, ‘고양이에 대한 관찰과 상상’, ‘가장 찬란한 순간’,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공존을 향한 발걸음’ 등 총 8장으로 구성돼 있다.

아기 고양이를 얻은 이규보의 이야기부터 만수무강을 기원한 고양이 그림, 속명공주의 고양이 사랑, 숙종의 퍼스트 캣, 고양이 가족처방을 거부한 영조, 바다를 건너서 양 고양이, 캣밤을 사용한 조선 한의학 등 고양이와 한국인의 우여곡절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서해문집·1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